

사사기 12. "소사사 돌라와 야일" [10 장 1 절-18 절]

1. 들어가기

10 장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나타난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잇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23년간 다스렸고, 그 후, 길르앗 지파의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암몬은 길르앗 지경을 넘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경까지 쳐들어 오면서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며,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찾았던 이방 신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사사들을 통해 수많은 구원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척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마음으로 근심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2.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잇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 _____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1-2 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밧에 장사되었더라” (1-2 절)

1) 두 가지 질문?

■ 사사로의 정통성은? B/c 스스로 일어난 사사?

- ✧ “일어나다” 라는 말에 사용된 동사는 “능동형”!
- ✧ 이전 사사들(ex, 웃니엘, 에훗, etc.)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사사 돌라는 없음!
- ✧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표현도 없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림!

- 학자들 - 누군가가 스스로 사사가 되기 위해 일어났다면, 그것은 시대적 사명을 올바로 인식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권력을 탐했기 때문!
 - 만약 돌라가 아비멜렉과 같이 권력을 탐해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써 직책을 감당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 그러므로, 돌라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있는 상황과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면서, 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믿음의 간절함으로 일어났다고 생각!

■ 사사 돌라가 싸워야 했던 적은?

☆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분명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성경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음!

➤ 주목 1 -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가 일어나 사사가 되었음!

- 곧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사 기드온이 죽은 뒤, 스스로 왕이 되어 온갖 폭정을 휘두른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불안, 그리고 영적 타락을 경험하며 흔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때 돌라는 거룩한 마음과 선한 믿음으로 스스로 사사가 되어 그 모든 혼란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하고자 했다고 생각.

➤ 주목 2 -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로 활동

-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으로 다스리던 사사.
- 돌라 또한 군사적인 행동을 했던 사사는 아니지만,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라고 볼 수 있음.

➤ 주목 3 - 사사 돌라가 통치했던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음!

■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의 악함과 세상의 고난을 보면서, 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용기 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사사 돌라가 죽은 뒤 길르앗 사람 _____이 일어나 _____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3절)

1) 사사 야일도 스스로 일어난 사사로 군사적 사사가 아닌 율법적 통치를 담당했던 사사로 보아야 할 것.

■ 주목: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표현이 없음.

2) 사사 야일의 시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기록은 없음!!!

■ 곧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 지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참고: 그러나 두 사사의 시대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사사 야일의 개인적인 삶은 _____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4-5절)

1) 야일은 _____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들은 저마다 어린 _____를 탔고, _____성읍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 30 명의 아들 - 여러 아내를 두었을 것,
- 어린 나귀 - 당시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 = 저들이 모두 부유했다는 증거.
- 30 성읍을 소유 - 자녀 한 사람당 한 성읍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
 곧 아버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한 성읍씩을 다스리도록 권력을 나눠줬다는 것을 의미함

2) 아비멜렉 사건 이후 등장하는 사사와 그 후손들은 권력과 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17 절에 보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 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 싸울 리더를 찾고 있었다. 곧 당시 길르앗의 각 성을 다스렸다는 야일의 아들들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6 절)

1)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와 _____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_____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 성도는 평안의 기간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사사 돌라와 야일이 통치하던 45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의 손에 파셨습니다.

1) 주목 1 :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오직 사사기 서론과 웃니엘 이야기에만 등장!
-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표현이 등장했음!!!
- 곧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분한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주목 2. : 당시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 공격해 옴!

- 유다 지파가 사사기에서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이곳이 처음!
- 곧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전보다 이제 훨씬 커졌고,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

3) 9 절: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7. 18 년간의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통치로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0-16 절)

1) 성도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다급하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음.

2) 주목: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이제 좀 성숙해 졌다?

■ 10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 이전처럼 그저 무작정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고백하였다는 사실!!
- 참된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첫걸음!

3)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 이유: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근거했기 때문!
-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곱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심!
- ☆ 이스라엘의 일곱 대적: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 참고 1. 일곱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역사적 사실

- ① 애굽 :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보내어 구원. (출애굽기)
- ② 아모리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 할 때, 아모리 왕 시혼은 이스라엘을 막으며 공격하였음. (민 21:21-24)
- ③ 암몬 :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18년간 통치할 때, 사사 에훗을 통해 구원. (삿 3)
- ④ 블레셋 : 사사 삼갈을 통해 구원 (삿 3)
- ⑤ 시돈 :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시돈 사람들이 함께 공격함. 하나님은 당시 사사 드보라를 통해 구원(삿 4)
- ⑥ 아말렉 :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 (삿 7)
- ⑦ 마온 : 마온은 곧 미디안을 가리키는 말로 역시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삿 7)

➢ 참고 2. 학자들 = 일곱번 구원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함!

☆ 곧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김!
- ☆ 주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김 다른 신들 = 7 가지!! (6 절)

-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보단 오히려 저들이 찾던 우상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음.

4) 성도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 15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 16 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 세레 요한은 마 3:8 에서, “회개에 합당한 _____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 내면적 회개가 항상 외면적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성경은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16 절 하)

- ‘근심하다’는 표현은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표현!
-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 Greenspahn)

8. 그때 암몬 자손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들을 대항하였습니다.

- 암몬이 길르앗에 진을 친 이유는 지난 18년 동안 평소 하던 대로 했던 것이라 생각.
-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진을 친 것이 나름 의미 있음
 - ☆ 18년 만에 저들이 대항하고자 했다는 것 - 회개의 결과로 나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 ☆ 성경에 미스바란 지명은 여러 곳에서 등장.-- 이곳은 “길르앗 미스바”로 야곱이 삼촌 라반과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으며 언약을 맺은 곳.
 - ☆ 미스바의 뜻은 “조심하다, 경계하다” 등의 의미가 있음.
- 이스라엘의 한 가지 문제점: 저들을 대표해서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아직 없었음
 - 그로 인해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리더를 찾으러 다님!!!
 -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누구를 세워 주실 것인가? 기대하게 됨

생각하기 1.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